

여자친구, '브로큰 룸' 버전 새 앨범 콘셉트 포토 첫 공개

과감한 변화...새로운 모습 도전 반영

13일 새 미니앨범 총 3가지 버전 발매

그룹 여자친구가 새 앨범 콘셉트 포토를 처음 공개했다. 여자친구는 지난 달 30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새 미니앨범 '회:송 오브 더 사이렌스' (回:Song of the Sirens)의 '브로큰 룸' (Broken Room) 버전 콘셉트 포토를 선보였다.

공개된 사진은 폐허가 된 듯한 방 안에 있는 여자친구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리저리 널브러진 가구와 소품들 속에서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며 위태롭고 지쳐있는 분위기를 자아낸다. 또 다른 사진은 얼룩진 화장과 흐트러진 느낌, 공허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여자친구는 전작 '회:래버린스' (回:Labyrinth)의 '룸' (Room) 버전 콘셉트 포토를 통해 몽환적이고 쓸쓸한 느낌을 선보였다. 이번 '브로큰 룸' 버전의 콘셉트 포토는 그 무드를 이어가면서도 여자친구의 극적인 변화를 암시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달 28일 여자친구는 첫 비주얼 콘셉트 '어 테일 오브 더 글라스 비드 : 버터플라이 이펙트' (A Tale of the Glass Bead : Butterfly Effect)를 공개하며 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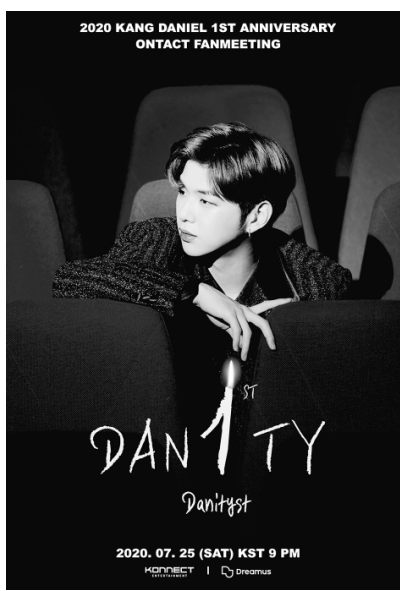
백 예열을 마쳤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서로의 손을 놓치고 혼자가 된 소녀 앞에 붉은 사과가 나타난다는 스토리로 새 앨범에 대한 궁금증을 더했다. 새 앨범 '회:송 오브 더 사이렌스'는 여자친구의 새로운 모습에 대한 도전이 반영된 앨범으로, 과감한 변화를 통해 더욱 새롭고 완성도 높은 앨범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여자친구는 오는 7월13일 새 미니앨범 '회:송 오브 더 사이렌스'를 총 3가지 버전으로 발매한다.



뉴스 1

강다니엘, 오는 25일 솔로 데뷔 1주년 온택트 팬미팅 연다

온라인 비대면 방식



오는 7월25일, 강다니엘이 드림 어스컴퍼니와 커넥트엔터테인먼트의 공동 개최로 첫 번째 온라인 팬미팅 '다니티스트'

(DANITYST)를 연다. '온택트' (OnTact)는 비대면을 뜻하는 '언택트' (Untact)에 온라인 연결(On)을 더한 개념으로 온라인을 통해 대면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침체된 오프라인 공연시장과 K-POP 콘텐츠의 부활을 위해 비대면 온택트(OnTact) 팬미팅을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의 경쟁력까지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온택트 팬미팅은 강다니엘의 솔로 데뷔 1주년을 전 세계 '다니티' (강다니엘 공식 팬클럽)들과 함께 축하하고 소통하는 의미에서 데뷔일인 오는 7월25일에 개최된다. 공연명 '다니티스트'는 팬클럽명 '다니티' (Danity)와 1주년을 뜻하는 '1st', 그리고 '전문직종·사업 활동 종사자'를 나타내는 'ist'를 더한 단어로, 다니티와 합

계하는 강다니엘의 데뷔 1주년 파티이자 아티스트로서 걸어온 1년과 앞으로 더욱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약 10여 개 지역 현지 최고의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들과 연계하여 팬들이 보다 편리하게 팬미팅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 온라인 공연과는 차별화된 콘텐츠로 강다니엘만의 브랜드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강다니엘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는 "팬 사랑이 각별한 강다니엘과 전 세계 다니티들이 데뷔 1주년을 함께 자축할 수 있도록 강다니엘의 최초 온라인 팬미팅을 진행하게 됐다"라며 "지금까지 함께 해준 팬분들께 잊지 못할 추억과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다양하고 풍성한 볼거리로 무대를 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주소녀 '버터플라이' 활동 성공적 마무리 "매일 행복"

음반 판매 자체 초동 신기록...음악방송 2관왕



우주소녀는 지난 달 28일 SBS '인기가요'를 끝으로 미니앨범 '네버랜드(Neverland)'와 수록 타이틀곡 '버터플라이'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들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우정(팬덤명)들 응원 덕분에 매일이 행복했다.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우정이 '우정해'라는 인사를 전하며 남다른 팬사랑을 드러냈다. 이번 앨범은 그간 다채로운 콘셉트로 음악 팬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던 우

주소녀 세계관의 또 다른 도약이자 음악적 성장으로 화려하게 거듭났다. 앨범 전제로 친숙한 동화 '피터팬'의 한 페이지를 각색해 신선하고 흥미로운 스토리를 이끌었고 타이틀곡 '버터플라이'로 동화 속 캐릭터 탐커벨의 시선에서 이야기를 풀어내며 특별함을 더했다. 멤버들의 음악적 참여도 돋보였다. 래퍼 엑시는 전곡 랩 메이킹은 물론이고 자작곡 '불꽃놀이 (Tralla)'를 수록하며 뛰어난 음악성을

인정받았고, 설악는 데뷔 이래 첫 자작곡인 '우리의 정원 (Our Garden)'으로 앨범에 참여, 팬클럽 '우정'을 향한 진심 어린 메시지로 팬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이를 바탕으로 우주소녀는 이번 활동을 통해 역대급 기록을 세우며 활기찬 날개를 펼쳤다. 발매 이후 일주일간의 앨범 판매량으로 팬덤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음반 판매 초동으로 6만9000여 장을 기록, 2일 만에 전작의 초도 판매량을 가뿐히 돌파하며 자체 최고 초동 신기록을 세웠다. 더불어 MTV, SBS FiL '더 쇼'와 Mnet '엠카운트다운'에서 1위를 차지하며 음악방송 2관왕에도 올랐다. 이번만 아니라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에서 신곡을 집중 조명하며 단독 인터뷰를 공개, 남다른 발전을 이룩했다. 지난 2016년 데뷔 이래 꾸준히 성장 곡선을 그려온 우주소녀는 이번 신보 '네버랜드'에서 동화적 상상력을 자극해 몰입도 높은 음악을 선물하며 대세 걸그룹으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가요계를 넘어 연기, 예능계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떤 다양한 행보를 보여줄지 기대감이 모인다.

펜타곤, 신곡 '바스키아' 퍼포먼스 비디오 공개



그룹 펜타곤이 신곡 '바스키아' 퍼포먼스 비디오를 선보였다. 펜타곤은 지난 달 30일 0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앨범 '로드 투 킹덤' 파이널 경연곡 '바스키아'의 퍼포먼스 비디오를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 속 펜타곤은 검은 깃발과 붉은 태양, 하얀 연기가 자욱한 황무지를 배경으로 처절하면서도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

스를 펼치고 있다. 특히 정체성을 잃지 않고 뜻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굳은 의지와 신념을 녹여낸 퍼포먼스로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몰입감을 더하며 보는 이들에게 짜릿한 전율을 선사했다. 이번 퍼포먼스 비디오는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비, 동방신기, 원더걸스, 소녀시대, 샤이니, 2PM, 박효신, 워너원 등 톱스타들의 뮤

직비디오를 연출한 장재혁 사단을 영입한 후 선보인 첫 결과물이다. 펜타곤의 '로드 투 킹덤' 파이널 경연곡 '바스키아'는 '장미셀 바스키아'라는 화가의 그림에서 모티브를 얻어, 억압과 무시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자유를 되찾자"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알렉트로닉 록 장르의 댄스곡이다. 팬버 후이와 우석이 작사 및 작곡에 참여해 펜타곤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역량을 아낌없이 담아냈다. 펜타곤의 진심을 담은 가사와 울부짖는 듯한 목소리가 곡의 웅장한 분위기를 더한다. 한편 '로드 투 킹덤'에서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와 음악으로 '펜타곤'이라는 장르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큰 사랑을 받은 펜타곤은 지난 달 30일 공개된 '바스키아' 퍼포먼스 비디오로 '로드 투 킹덤'의 뜨거운 열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아이린&슬기, 6일 '몬스터' 발매 카운트다운 생방송



유닛 데뷔를 앞둔 레드벨벳-아이린 & 슬기 (Red Velvet - IRENE & SEULGI, 이하 아이린&슬기)가 새 앨범 카운트다운 생방송을 진행한다.

아이린&슬기는 오는 7월6일 오후 5시부터 네이버 V LIVE 레드벨벳 채널을 통해 첫 번째 미니앨범 '몬스터' (Monster) 발매 기념 생방송 '레드벨벳-아이린&슬기

의 Monster 주식회사'를 진행하며, 다채로운 매력과 센스 있는 입담으로 글로벌 팬들과 소통할 예정이어서 뜨거운 관심이 기대된다. 특히 이날 방송은 음원 공개 한 시간을 앞두고 진행되는 만큼 타이틀곡 '몬스터' (Monster)를 비롯한 새 앨범 소개, 앨범 언박싱 등 다양한 스포일러를 선사하며, 아이린&슬기의 찰떡 호흡이 돋보이는 코너들로 '특급 유닛'다운 면모를 선보일 전망이다. 또한 지난 달 30일 아이린&슬기 공식 홈페이지 및 각종 SNS 레드벨벳 계정을 통해 멤버 슬기의 티저 이미지가 공개됐으며, 시크한 분위기 속 치명적인 눈빛과 스타일리시한 포즈로 독보적인 아우라를 선보여 팬들을 매료시켰다.

김호영, 악플 고충 토로 "가족들 상처받는 것 힘들어"

뮤지컬배우 김호영이 '비디오스타'에서 악플에 대한 심경 고백을 전한다. 지난 달 30일 방송된 MBC에 브라운 '비디오스타'는 '극한 텐션 특집 Show Me The High!'로 꾸며지는 가운데, 뮤지컬 배우이자 뛰어난 예능감으로 연일 화제를 모으는 김호영이 출연했다. 최근 자신의 데뷔작인 뮤지컬 '웬트'를 약 20년 만에 참여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김호영은 "2002년에 맡았던 '엔젤' 역을 또 다시

맡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고 전하며, 오디션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비디오스타' 덕에 오디션에 붙을 수 있었다"며 의문의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비디오스타'가 세운 뜻밖의 업적은 무엇이었는지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김호영은 뮤지컬뿐만 아니라 각종 예능, 홀쇼핑 등에서 화려한 입담과 넘치는 끼로 활약하며 예능 대세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갑의 양대산맥'이라 불리

는 조권과 함께 이정현의 '바퀴' 콜라보 무대를 펼쳐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고. 한편 그는 녹화 말미에 악플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으며 "내가 상처받는 것보다 가족들이 상처받는 것이 더 힘들다"며 심경 고백을 전하기도 했다. 김호영은 "그럼에도 본인이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엄마'라며 어머니가 본인을 부르는 특별한 애칭을 공개해 MC들을 감동케 했다.

'노래가 좋아', KBS 2TV 화요일 저녁 시간대로 개편

'노래가 좋아'가 KBS 1TV에서 2TV로 편성을 옮겼다. '노래가 좋아' 측은 "화요일 오후 8시30분 KBS 2TV에서 방송을 시작한다"라고 밝혔다. '노래가 좋아'는 2016년 10월8일 KBS 1TV에서 처음 방송을 시작해, 총 800여 팀이 출연하며 따뜻한 가족애와 화합의 하모니가 담긴 무대를 선보여왔다. 부부MC 장윤정 도경완의 찰떡 호흡이 더해져 감동과 재미 두 마

리의 토끼를 잡기도 했다. KBS 2TV 개편을 맞이해 '노래가 좋아'는 '트롯트 신동 특집' 무대를 꾸민다. 그간 정동원 흥집엔 남승민 전 유진 등 화제의 트롯트 신동들을 배출해온 '노래가 좋아'에서 그들을 뛰어넘을 차세대 트롯트 신동을 선발하기 위한 뜨거운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이들을 심사하기 위해 가요계의 신사 이무송, 개그계의 디

바 김미려, 글로벌 예능인 샘 오취리, 대세 중의 대세 태권 트로트 나태주까지 특급 심사위원 군단이 출격한다. 이들의 유쾌한 입담과 재치 있는 심사평으로 방송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방송에는 총 5명의 트롯트 신동이 무대에 오른다. 어린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뛰어난 트로트 실력과 다양한 끼를 선보인다는 후문이다.